

## Client Alert

6 April 2020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요:

**Adeline Wong**  
Partner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Krystal Ng**  
Partner  
+603 2298 7937  
krystal.ng@wongpartners.com

**Justin Chong**  
Paralegal  
+603 2299 6533  
justin.chong@wongpartners.com

### 기 소 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원격 근무: 말레이시아의 세무 리스크 관리

COVID-19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정부의 명령을 준수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직원들의 원격 근무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직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가 원격 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동 제한 및 격리 조치로 인해 장기간 해외에 주재하며 원격 근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원격 근무가 증가할수록 중대한 세무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원격 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논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세무 이슈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리스크

원격 근무는 외국 기업(즉, 비거주자 기업)에게 고정사업장(PE) 이슈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사업장(PE) 리스크는 외국 기업의 사업을 일부 혹은 전부 (a) 고정된 사업 장소 혹은 (b) 종속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중과세협정에 따라 고정사업장(PE) 리스크는 외국 기업의 직원이 수행하는 기타 활동의 결과로 야기되기도 합니다.

#### 고정된 사업 장소

기업이 직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에 배치한 경우, 기업은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정은 고정된 사업 장소로 발생하는 고정사업장(PE)은 외국 기업의 사업을 일부 혹은 전부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의미합니다.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에 의하면 고정된 사업 장소로 인한 고정사업장(PE) 이슈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 a) 타 국가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즉, 사무소와 같은 시설 혹은 특정 상황에서는 장비가 존재하는 경우
- b) 타 국가에 사업장이 고정된 경우, 즉, 특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반적으로 6 개월 이상) 뚜렷한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
- c) 타 국가에서 기업의 사업이 고정된 사업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그러므로,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이 말레이시아에서 장기간 동안 주재하며 고정된 장소(예, 사무소)에서 연속성을 갖고 근무를 수행한다면 고정된 사업 장소로 인한 고정사업장(PE)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속 대리인 고정사업장(PE) 이슈

고정사업장(PE)은 종속 대리인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기업의 주재국 외의 사법권에서 기업을 대신해서 혹은 상속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동 개인은 종속 대리인입니다.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정은 대리인이 기업을 대신해서 혹은 상속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종속 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종속 대리인 고정사업장(PE)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직원이 말레이시아에 장기간 주재하며 기업을 대신해서 계약들을 마무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PE) 인정 시 소득 배당

만약 말레이시아에 고정사업장(PE)가 있다고 인정되고,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과세됩니다.

공인된 OECD 접근법에 따른 OECD 가이드라인은 고정사업장을 하나의 독립실체로 보고 정상가격 원리에 따라 이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공인된 OECD 접근법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포괄적인



이중과세협정의 고정사업장(PE) 규칙에 의해 고정사업장(PE)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기업의 등기 이사들도 국제적인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하여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갖는 근거는 관리 경영 임직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기업의 사안을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등기 이사들이 외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게 되면, 기업의 주요 사안 및 관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 이사회 미팅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지 않음) 간주될 리스크가 있으며, 기업은 결국 말레이시아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세청은 이사회 미팅이 말레이시아에서 물리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원격으로 진행된다면, 거주자 확인서(Certificate of Residency)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현지인 등기 이사를 더 등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적 세무 이슈**

### 잠재적 개인소득세

직원이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여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면, 동 직원의 고용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 소득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 의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간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한 기간이 60 일 이상이면 말레이시아 소득세에 따라 과세됩니다.

## **권고 사항**

COVID-19의 확산으로 기업은 늘어난 원격 근무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바, 직원이 해외에서 원격 근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잠재적인 말레이시아 세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에 마련된 해외 원격 근무 방식을 검토하고, 해외에서 원격 근무하는 직원들을 모니터링하여 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Wong & Partners 조세법무그룹의 지원**

본 사무소의 조세법무그룹의 세무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a) 기업의 원격 근무 방식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말레이시아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원격 근무 및 업무 방식을 자문드립니다.
- b) 기업의 원격 근무 인력이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상황을 평가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 c)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최소화하도록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내 가이드라인 혹은 프레임워크 준비를 지원합니다.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http://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